

# 여수시 생활인구 늘려 지역활력 창출

### 인구감소 대응 TF 보고회

### 청년·일자리·관광 기반 조성 등

### 13개 부서장 다양한 대책 논의

여수시가 생활인구 유지 증대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구감소대응 TF 보고회를 갖고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활력 창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

이날 보고회는 최정기여수시부시장을 비롯한 13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기반 조성 등 생활인구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시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준비로 인한 재정 형편을 고려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19개 사업(신규 7건, 기존 사업 보완 10건, 법·제도개선 2건)을 중점 발굴했다.

신규 시책으로는 ▲여수형 청년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레븐 브릿지 마라톤 대회 ▲2025 여수KOVO컵 프로배구대회 ▲섬섬여수 자율주행버스 운영 등이 제시됐다.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기존 어촌계, 수협, 영어



조합법인이 행사한 양식업권을 지자체가 취득해 신규 귀어인에게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공공형 만 원 임대'가 언급됐다.

최정기 부시장은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 기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핵심"이라며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회 이상인 사람과 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올해 3월 말 발표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여수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8-14배로,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4.9배)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생활인구 유입이 많은 순천, 광양을 아울러 광양만권 교통·관광·의료 인프라를 연계하고 인구 정책을 확대·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내년 전남 체전·장애인 체전

### 구례군 상징물·구호 등 선정

내년 구례군에서 개최되는 전남 체전과 장애인 체전의 상징물이 선정됐다.

구례군은 지난 11일과 20일, 2회에 걸쳐 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65회 전남체전과 제34회 장애인체전 대회마크·마스코트·포스터·구호·표어 8개 부문에 대해 당선작과 가작을 각 1건씩을 확정했다.

군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제적합성·상징성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 대회 마크와 마스코트, 포스터 부문에서 우수 작품을 심·선정했다.

전남체전 구호는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 표어는 '자연이 숨쉬는 구례, 희망이 꽃피는 전남'으로 정했다. 또 장애인체전 구호는 '자연의 땅 구례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 표어는 '구례에서 맞잡은 손, 하나되는 감동체전'으로 정했다.

군은 선정된 상징물에 대해 지역적 특색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보완 후 전라남도체육회 및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승인 이후에 양대 체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길용 구례 부군수는 "선정된 대회 상징물은 양대 체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구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징물 활용 등 홍보를 통해 내년도 체전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가 민원실 찾아온 시민들의 복잡한 행정업무를 도와줄 민원안내도우미 제도 '녹색조끼를 찾으세요'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 민원 안내, 녹색조끼 찾으세요

### 광양시 민원도우미 제도 운영

광양시는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복잡한 행정업무를 보다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해 '녹색조끼를 찾으세요'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민원실에 체계적이고 친절 한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는 다수 제안이 반영돼 실제 정책으로 시행된 사례다. 녹색 조끼를 착용 한 민원안내도우미는 창구 위치 안내부터 서식 작성, 번호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까지

1:1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양시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에게는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시민에게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민원실을 찾은 한 시민은 "처음 방문했을 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는데, 녹색 조끼를 입은 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독일마을' 차세대 관광 명소 기대

###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연내 착수

### 남해독일마을보다 경관 등 뛰어난

고흥군이 독일테마 기반 공동체 마을로 조성 중인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가칭 '고흥독일마을')가 차세대 관광명소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고흥을 방문한 남해 독일마을 해설사 김두환 씨(전 파독 광부)와 원예예술촌 민승 대표가 고흥 새꿈도시 사업 부지를 비롯해 인근 소록도, 녹동항 등 주변 자원을 함께 둘러보며 입지 여건과 관광 잠재력에 대해 현장을 평가했다.

이들은 "고흥 독일마을은 바다와 자연경관, 교통 접근성 등에서 남해보다 더 뛰어난 장점을 갖췄다. 향후 관광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흥 독일마을은 지난 2023년 9월 고흥군이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독일마을 조성 프로젝트로, 올해 공사 착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고흥 독일마을 참고 모델인 남해 독일마을은 1960-19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독일식 건축양식과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연간 약 1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대표



'고흥독일마을' 조감도.

관광지다.

김두환 씨와 민승 씨는 "고흥 독일마을과 남해 독일마을이 '형제 마을'로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마을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단계에서도 상호 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 독일마을은 남해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고흥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독일문화, 소록도의 역사 자원, 녹동항 특산물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보성군, 치매 노인 실종 예방·대응 모의훈련

### 신속 대응체계 민관 협력 강화

보성군이 지난 20일 보성읍 택촌마을에서 치매 안심센터 주관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보성군의 치매 안심 마을인 택촌마을을 중심으로 치매 환자 실종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치매 환자 실종 상황을 가상한 주민 참여형 훈련으로 실제 마을 주민이 실종 치매 노인 역할을 맡아 진행됐으며, 마을 주민을 비롯해 보성경찰서·보성소방서·치매 파트너 등 약 60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실종신고 접수 ▲현장 출동 및 수색 ▲배회자 발견 ▲보호자 인계까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실종 노인 발견 시 대처 요령 ▲실종 예방 방법 ▲배회 인식표 및 배회금지지 신청 안내, ▲지문 사전 등록 등을 소개하며 실종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택촌마을 주민은 "동네 주민이 치매 노인 역할을 해서 흥미로웠지만, 나 역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실종 예방법을 잘 알아두고 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군민 대상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진단 시 등록 관리 ▲치료비 지원 ▲쉼터 운영 ▲실종 예방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관련 문의는 보성군 치매안심센터(061-850-8695)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 가능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곡성 오곡면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 운영

### 12종 특산물 1300만원 매출

곡성군 오곡면사무소가 지난 23일 자매결연 지자체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을 방문해 '오곡면 작가래 장터'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장터는 오곡면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사전에 주문 및 현장 판매를 통해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거래장터를 통해 매일 등 12종의 신선한 농산물 365세트를 판매해 총 1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오곡면 방문단은 직거래장터뿐만 아니라, 장암동 주민자치위원과 교류차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과 우호 증진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 지역의 주민들은 장암동 주요 명소를 함께 둘러보며 지역 간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승현 오곡면장은 "이번 작가래 장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